

지방선거 D-1



김수용 후보 <열린우리당>



김청수 후보 <민주당>



고길호 후보 <무소속>

오차범위내 팽팽한 접전

■ 신안군수

전남에서 유일하게 14개 섬으로만 구성돼 유권자 표심잡기가 녹록치 않다. 배를 타고 이 섬 저 섬 오갈 수 밖에 없어 선거 운동 자체가 힘들뿐더러 웃슴과 아랫섬간 주민 성향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 4만7천 275명의 주민 가운데 선거인수는 4만240명으로 인구수 대비 유권자 비율이 85.1%에 달해 전남(평균 77.2%)에서 가장 높다. 짧은 층은 그만큼 적고 노령인구가 많다는 얘기가.

하고 있다.

고 후보는 한화갑 의원 비서관과 민주당 신안군지구당 부위원장, 전남도의원 등을 역임했으나 민주당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는 "민선 4기에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압해권·북부권·중부권·혁신권 등 4대 권역별 개발 계획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 중형조 선산단지 조성, 다이아몬드제도 개발, 도서 정주기반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민주당 김청수 후보는 "이제 드디어 승기를 잡았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난 주말부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며 승리에 자신감을 보였다. 압해면 출신으로 우리소금살리기운동본부 상임대표와 민주당 중앙당 재정위원을 지낸 그는 막판 '민주당 바람'에 기대를 걸고 있다. 같은 당 박준영 지사

김청수

박준영씨 측면지원 가세 막판 '민주당 바람' 기대

고길호

"장기적인 발전 기틀 마련 유권자들이 평가해 줄 것"

적 지지를 보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군정의 수장 자리를 놓고 DJ의 조카인 열린우리당 김수용 후보와 민주당 김청수 후보, 현 군수인 무소속 고길호 후보 등 3명이 한 치의 양보 없는 열전을 벌이고 있다. 목포MBC 등 지역언론의 여론조사 결과 현재까지 관세는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무소속 고 후보와 민주당 김 후보가 오차범위내에서 엇박뒤치락하며 팽팽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소속 고 후보는 "지난 4년동안 새천년 대교와 송공 연안항 지정, 압해 신청사 건립, 민자 유치 등으로 신안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만큼 유권자들도 이를 평가해줄 것"이라며 승리를 낙관하고 있다. 도초면 출신으로 비금·도초가 지지기반이지만 모든 읍·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자체 판단

도 지난 28일 전남서부권 정책공약 발표회를 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갖고 측면지원에 나섰다. 김 후보는 "소금·스크린(영화)·스포츠가 함께하는 3S정책과 신안만이 소유하고 있는 천혜의 자원 및 문화·역사 등을 접목시킨 5미시책을 적극 추진, 10만 신안시대를 열어가겠다"며 "다이아몬드 섬 및 송공산 상·토성 유물 개발, 영상테마파크단지 조성, 신안 영상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DJ의 누님으로 26년 전 작고한 김해월씨의 막내 아들이 열린우리당 김수용 후보는 국회의장 보좌관 경험과 6개 권역별 개발 계획을 내세워 표심을 파고 들고 있으나 낮은 당 지지도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정기호 후보 <민주당>



강종만 후보 <무소속>

관세 혼전... 서로 내가 '우세'

■ 영광군수

제7대 전남도의원을 지낸 백수을 출신 동갑내기(1954년생)인 민주당 정기호 후보와 무소속 강종만 후보가 군수 선거에서 1대 1로 맞붙었다. 지지도는 팽팽한 접전양상이다. 혼전을 거듭해 '격전'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지역이다. 두 후보는 서로 자신의 우위를 주장하고 있다. 두 후보는 '3선 연임 제한'으로 김봉열 현 군수의 출마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일찍부터 표심 선점 경쟁을 벌여왔다. 영광은 민주당 지지세가 탄탄하지만 같은 당 소속 11년 단임 군수 체제에 대한 거부감도 적지 않다.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를 둘러싼 찬반 대립과 갈등의 양금이 채 가시지 않아 이를 치유할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

역~1조원의 대형 프로젝트를 만들어 지역 발전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농어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넘어민 소득증대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농어가 경영 안정과 유통체계 개선, 인삼·복분자 등 특새작목 육성이 그 대안이다.

'짧은 영광, 강한 영광, 신바람 영광'을 슬로건으로 군민통합과 공정하고 투명한 군정 운영에도 힘을 쏟을 요량이다. 무소속 강 후보는 "유권자들 사이에 이제는 바뀌어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상대 후보를 크게 앞서가고 있다"며 자신의 우위를 주장했다. "지방자치 10여년동안 특정세력에 의한 정치로 경제·복지 등 모든 분야가 낙후돼 원성이 높다"며 변화와 개혁, 인물론을 역설해온 그 역시 당선을 확실하는 표정이다. 공무원을 거쳐 백수새마을금고 이사장,

정기호

"찬반대립·갈등 양금 치유 탄탄한 조직력...승리 낙관"

강종만

"군민들 특정정당에 식상 변화와 개혁 선택할 것"

하다. 민주당 정 후보는 "최근 지지율이 오차범위를 벗어나 우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시골마을에서부터 민주당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바람이 서서히 불고 있어 승리를 낙관한다"고 밝혔다. 탄탄한 조직력이 강점이며,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낙연 의원의 상주 하다시피 하면서 선거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18년간 영광기독교·산하병원 원장을 맡으며 지역민들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어온 그는 "전국 제1의 세일즈 군수가 되어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주력하겠다"는 각오다. 정 후보는 올해부터 신설된 원전세와 기존 원전지원을 10년동안 모으면 3천억원인데 여기에 국·도비와 민자를 보태 6천

영광군의회 의원·의장을 지냈으며 1천여세대에 이르는 진주 강씨의 탄탄한 인맥이 우군이다. 강 후보는 태양열·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하고 기업투자 유치, 재래시장 활성화로 영광을 '활기찬 경제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포부다. 불갑산을 도립공원으로 만들고 원불교 최초 발생지인 영산성지의 사적지 지정, 해변 지역 관광개발 등 문화관광 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복지와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여성대학 설립 등 교육복지분야의 공약도 내놓았다. 계층간·지역간 갈등 해소를 위해 주민 일체감 조성을 군정 제1의 목표로 삼을 계획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연수 후보 <열린우리당>



김경부 후보 <민주당>



이동진 후보 <무소속>

- 격전지를 가다 -

민주 현군수 VS 우리 맹추격

■ 진도군수

진도군수 선거전이 막판 접전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당초 김경부 민주당 후보의 낙승이 예상됐지만 박연수 열린우리당 후보의 맹추격이 상승세를 타면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의 관세가 펼쳐지고 있다. 특히 김경부 후보와 박연수 후보는 지난 진도군수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예비 주자로 경선을 펼쳐 0.02%라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김경부 현 군수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바 있어 리턴매치 성격도 띠고 있다. 우선 '살맛나는 진도'라는 선거 구호를 내세우고 있는 김경부 민주당 후보는 진도의 관광산업 활성화와 함께 진도 특산 농산물 유통단지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김경부 후보는 "선거전이 흑색선전 등에 물들고 있어 분노를 넘어 서글픔까지 느낀다"며 "그러나 진도군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진도를 바꿈시다'라는 선거 구호로 진도 곳곳을 누비고 있는 박연수 열린우리당 후보는 지난 28년 동안 정부 부처와 진도 부군수를 지내면서 쌓아온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진도를 '전국 최고의 상품'으로 만들겠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박 후보는 우선 농어업 유통 체계를 개선하고 진도의 관광자원 개발에 적극 나서는 한편 복지에 산 확충 및 다양한 노인복지제도 마련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박 후보는 선거가 막판으로 접어들수록 진도 곳곳에서 자원봉사자가 몰려들고 있다며 현재의 지지도 상승 등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10% 포인트 이상의 승

박연수

"28년간 행정경험 풍부 지지 급상승 10%차 승리"

김경부

"현안사업 지속 추진 적임 대세 기울어 낙승 자신"

있다. 김 후보는 또 조선산단단지 조성하고 팽목 연안항 개발 등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한번 더 기회를 달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진도 군민이 나를 선택한 배경에는 앞으로 6년 동안 진도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도 군민에게 마지막으로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 관세와 관련 김경부 후보측은 경쟁 후보들이 흑색선전 등을 일삼고 있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었으며 현재 10%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막판 민주당 바람까지 불고 있는데다 부동층마저 민주당 지지성향을 보이고 있어 여유있는 낙승을 기대하고 있다.

리가 가능하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박 후보는 "일면식도 없는 군민이 자원봉사를 하겠다며 사무실을 찾을 때 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며 운동화 끈을 고쳐맨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진도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막판 민주당 바람에 대해 박 후보는 이미 진도군민의 여론 흐름이 '이번에는 바뀌보자'는 방향으로 선회한 상황이라서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박 후보는 "민주당에 실망한 진도군민들이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경영행정 전문가를 군수로 선택, 새로운 진도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한민국 선거사상 최초로 선거결과에 활용될 수 있는 휴대폰문자발송 자동프로그램 한 번에 1000개 발송. 승리의 저를 펼치기 위한 최후의 기회입니다. 2006년 5월 30일(화) 18:00 ~ 20:00. 새마을복지지원사업. 광주·전남지사 안솔예드빌. Tel. 062-281-7702, 281-5055. H.P. 010-4610-0193

텔레마케터 전문가 과정 모집. 한국텔레마케터센터. 문의 082) 412-3200-1. www.kctelcenter.com